

1. (대상) 김*옥

제 목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시절,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서민금융지원제도
<p>사회 초년생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저에게 금융 교육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저도 부자가 되는 줄 알았고, 긴급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 역시도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금융에도, 세상에라도 무지했습니다.</p> <p>우리 집은 삼촌이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진 삼촌의 자식들까지 함께 살아서 자식이 넷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직장에 다녔지만, 한창 자라나는 참새 같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기엔 늘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빈 주머니를 탈탈 털어봐야 형편은 뻘해서 밀린 사글세가 쫓아오는 것마냥 늘 허덕였습니다.</p> <p>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저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저소득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했고,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p> <p>하지만 어려운 삶을 꾸리느라 당신을 위한 변변한 화장품 하나 없이 살던 어머니는 얼마나 삶이 고단하셨을까요? 굳건히 버티던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가세는 더욱 기울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만, 그런 일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 달간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것이 너무나 꿈만 같았습니다.</p> <p>그러나 현실은 도망갈 새도 없이 덮쳐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뇌출혈을 막기 위해 수술해야 했지만, 돈이 나올 구멍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형편이 어려워 조금씩 모아주었으나 한 달간 쓴 병원비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빈 통장을 들고 “저희 어머니가 쓰러져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은행을 찾아갔지만,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도 낮아 대출이 안 된다며 큰 소리로 면박을 받고는 얼굴이 붉어져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p> <p>당장 차가운 현실 앞에서 제가 돈을 빌릴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하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곳은 카드사와 고금리 대출밖에 없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대출 광고는 그저 재밌게 만든 광고인 줄 알았지 무서운 족쇄를 아름답게 포장한 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p> <p>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연 23.9%의 고금리 대출과 카드론, 현금 서비스</p>	

등을 받아 우선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소금물이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는 것처럼 빛은 점점 제 숨통을 조여 왔습니다. 저는 빛을 갇기 위해 끊임없이 빛을 져야 하는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힘든 일은 원래 연거푸 온다고 했었던가요.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며 캐피탈 업체에서 끊임없이 문자 연락이 왔는데, 빛에 시달리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게 대출을 받고 싶으면 자사 앱을 깔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적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금융감독위원회라며 당장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될 거라면서 저를 겁박했습니다.

겁을 먹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대출을 갚을 돈이 없는데 고민하다가 카드 회사 앱에 접속했더니 카드사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곳에서 신용 불량자 될 거라면서 전화가 오진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카드사는 당장 그 앱을 지우라며 보이스 피싱 업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앱은 개인 정보를 다 유출하고 중간에서 전화도 가로채는 악성 앱이니 절대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앱을 깔고 나면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연락해 겁박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의 순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드사 보안 프로그램에 잡혀서 알게 되었다며 당장 앱을 지우고 전화번호를 다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앱을 지우고 번호를 차단하고 나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빛의 수렁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스 피싱이라니... 이곳이 절망의 끝인 줄만 알았는데, 더 깊은 절망이 있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손 두 개 중 하나는 나를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한 손이라고 생각하며 산 저와는 달리, 엮어진 사람에게 이때다 싶어 남은 주머니마저 털어가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앞으로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란 생각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고, 때로는 두 날개가 바닷물에 온통 젖고 나서야 길이 보일 때도 있는 걸까요.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던 중 근로자 햇살론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기일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정말 사기가 아니죠? 정말, 제가 대출되는 거죠? 몇 번이나 물어보고 서민금융제도 이용 사례들을 찾아 읽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긴급하게 받아서 어머니 수술비도 마련하였고, 고금리 대출에서도 마침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야만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내 인생은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저처럼 한강 앞을 서성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는 “고금리 대출 때문에 자살을 생각 중입니다”, “사채 때문에 빚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란 글을 볼 때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해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진 우리를 밟고 일어서려는 건 아니라고, 어려울 땐 어렵다고 얘기하고 기꺼이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를 도와주려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서민금융지원이 있는 이상,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가 안 보여 막막하게 혼자 울던 밤도, 차근차근 빛을 갇아 나가는 날들 속에서 빛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게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빛을 완전히 청산하고 더욱 성숙해져 남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모든 믿음이 사라졌을 때, 나를 돕는 또 다른 손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준 서민금융지원제도. 제게는 내일을 꿈꾸게 해준 단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2. [최우수] 정*화

제 목	햇볕처럼 따스한 온기를 가져다준 햇살론
<p>한겨울, 차갑게 언 눈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햇볕같이 햇살론은 아내와 딸들의 불안했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사고로 인해 불편했던 내 몸을 낮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동안 뒤 돌아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계속 질주했었다면 지금은 잠시 뒤를 돌아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힘들었던 일상 속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준 햇살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자 한 자 써 내려갑니다. 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상황에 마주친 가족들께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p> <p>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제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저는 운전을 잘한다는 특기를 활용하여 한 가게에서 손님들의 주차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부근에 오르막길이 많아 주차하기 위해 손님의 차를 향해 뛰어갈 때면 숨이 턱 하고 막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버텨야 했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 월급이 가족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더운 여름철에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p> <p>작년 겨울, 일하던 도중 차와 크게 부딪쳐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제 몸이 뜰 정도로 크게 부딪쳤지만, 병원에서는 다리만 골절된 것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걸 누군가 알아주었는지 다행히 다른 곳은 괜찮았습니다.</p> <p>주차 일을 하던 저에게 다리를 다친다는 것은 더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 몇 달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며 여러 번 철심 박는 수술을 하고 재활을 위해 시간을 보냈지만,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p> <p>신용점수가 낮고, 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 딸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습니다. 두 딸 모두 잠을 줄여가며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시간은 공부해야 했기에,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쓰라리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삶을 딸들에게 전부 넘긴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생활에 드는 비용을 해결하기엔 부족했습니다.</p> <p>그런 도중에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지 담당자님은 저의 상황을 다 듣고 햇살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p>	

햇살론은 대출이자가 낮고 납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이율이 높은 미소드림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학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어서 대학생인 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같이 신용 점수가 낮아도 대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여러 지원제도가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햇살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햇살론을 받고 얼마 뒤 저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눈 쪽에 핏줄이 터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뇨가 10년 이상 계속되어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왜 병원에 오지 않았냐며 의사 선생님이 물었지만, 저와 아내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딸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말해도, 아내는 병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당 수치가 높아 바로 수술을 하기는 불가능했고 당 수치가 떨어지도록 병원에서 2주간 입원했습니다. 입원 후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비급여인 항목이 많아 병원비 부담이 컸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치료받아 기쁜 상황에서도 비용 걱정으로 어찌할 줄 몰랐겠지만, 햇살론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아내가 합병증을 완치하는 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 골절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아내가 당뇨합병증 치료를 할 때 모두 햇살론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 주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퇴원하고 집에서 통원하며 주기적으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와 햇살론과 주변 지인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 이를 통해 힘을 내고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햇살론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미소드림적금통장을 발급받아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돌이켜 볼 때 햇살론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제 가족의 삶은 지금처럼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햇살론과 제 이야기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고, 좋은 상황이 꼭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 [최우수] 박*영

제 목	사업 시작에 버팀목이 되어준 미소금융
<p>강릉 중앙시장에 많은 관광객이 오던 2019년 4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적당한 자리가 있어 가게를 개업했습니다.</p> <p>저는 그 전에 장사를 해본 적이 없고 직장에서 영업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했던 일이었지만, 사실 영업을 저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장에 더 다니기는 힘들고, 아이는 키워야 하고, 방법을 찾아보다가 어머니와 함께 호떡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강릉 쪽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던 때여서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p> <p>처음에는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호떡과 슬러시, 커피 등 음료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다가오자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어떤 걸 더 팔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감자전도 추가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손수 만든 감자전은 반응이 좋았고, 일손이 모자라서 친오빠도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에는 음료수와 감자전을, 다시 겨울이 돌아오자 호떡을 주력으로 팔면서 장사를 이어 나갔습니다.</p> <p>장사도 즐거웠고 매출도 꾸준했지만 늘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늘 더 나은 먹거리와 아이টে를 연구하며 즐거웠던 제 머릿속에 어느 순간부터 다음 달 임대료 등의 걱정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p> <p>문제는 가게를 시작할 무렵 받았던 고금리의 대출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은행에 문의했더니 미소금융을 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강릉지점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p> <p>지원받은 자금으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갚았고, 남은 자금으로 물품 대금도 결제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높은 대출을 사용하다 금리가 많이 낮아지니 대출 부담도 많이 덜었습니다.</p> <p>코로나19가 갈수록 심해져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 빠져나가는 돈만 많아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기만 했는데, 미소금융의 도움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담위원님께서도 때때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매출은 나아지고 있는지 가게 영업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주시며 여러 방향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곤 했습니다.</p>	

제가 재고 정리에 대한 힘든 점을 털어놓았던 것을 기억하셨는지 어느 날은 SK미소금융에서 소형 승합차를 1년간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다고 제안도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추진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였지만, 정말 가슴이 따듯해졌습니다.

6월에는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장사를 처음 해보는 터라 컨설팅이란 단어조차 낯설었지만, 전문가들이 몇 번이나 가게를 방문해서 물건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순서나 가게 외관이나 내부에서 저희가 놓치는 점에 대해 콕콕 집어 개선할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 네이버 지도에 가게를 등록도 해주셨습니다. 시간도 없고 염두가 나지 않아 배우기 힘든 일들을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생각했지만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만연해진 코로나19이지만, 그때 당시는 길에 사람이 다니질 않을 정도니 당연히 매출은 점점 반 토막이 되어 갔습니다.

이대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겠다고 생각해 결국 가게는 오빠에게 맡기고, 근처 옷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사가 조금만 더 잘되기 시작하면 다시 호떡 가게에 합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옷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으로 친어머니 대하듯 정성 들여 취향에 맞게 옷을 보여드리고 “고모님”, “이모님”하면서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일을 하니, 사장님이 가게를 인수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원이 있었지만 제가 열심히 한 덕분에 좋게 봐주신 것입니다.

처음엔 다시 호떡 가게로 돌아가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옷가게에 적응하는 만큼 오빠도 혼자 잘 적응하고 있었고, 다른 일손이 더 필요한 만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옷 가게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인수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가게를 성장시킬 것인가 여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단오제가 열리면 옷을 가지고 가서 판다거나, 새벽시장에 자리를 잡는 방법들을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오제가 열리지도 않고 새벽시장은 정해진 인원들만 들어갈 수 있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신에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가게’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전 사장님은 5만 장 정도의 옷을 대량으로 창고에 보관해두고 파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옷들도 많이 있어서, 소비자 수준이 많이 올라간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대료만 매달 나가는 창고에 오래된 옷은 낭비라고 여겨져 제일 먼저 악성 재고는 업자에게 대량으로 처분하고,

매장에서 팔 수 있는 옷들만 골라서 다른 매장들보다 더 싸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더 좋은 옷을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되고 자연스레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1월부터는 혼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할 일도 두 배로 늘어나고 몸은 비록 힘이 들지만, 한 분 한 분 오시는 손님을 기억하며 눈높이에 맞게 응대하니 손님들도 무척 좋아하시고,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단돈 천 원이라도 더 깎아 드릴 수 있으니 재방문율도 늘어났습니다.

좋은 옷을 좀 더 싸게 구매하여 낮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각 지방 의류 시장에 발품 팔아 도매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원단과 착용감을 판단하기 위해 직접 입어보고 테스트 해 본 후 손님들에게 장단점을 설명하고, 반응을 종합하여 아무리 마진이 좋은 옷이라도 가치가 떨어지는 옷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용도가 낮아 미소금융을 이용하였지만, 지금은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져서 일반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니'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신용도가 낮아 일반금융에서 거절당했던 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미소금융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비싼 이자에 허덕이며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지금 저는 시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 한 옷 가게에서 활기차게 장사 중이고 최근엔 친오빠 두 분에게 소소하게나마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가게 한 칸에 자리를 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의 주택을 수리할 일이 생겨 돈을 보태드리며 '아, 이제야 내가 효도를 하는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주변 상인들에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좋은 제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문의해봐"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힘든 시기에 누군가 잡아준 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지칠 때면 어떻게 아시는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주시는 SK미소금융 권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SK미소금융과 맺은 인연 너무나 소중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소금융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장려) 최*숙

제 목	몇 배의 기쁨이 되어 돌아온 휴면예금
<p>“할머니, 나 딱 일 년만 휴학할까 봐.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나까지 부담을 주기는 좀 그래서. 그동안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학비도 벌고 용돈도 벌면 좋잖아.”</p> <p>손주 녀석으로부터 갑자기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이 깊고 듬직한 손자는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며칠을 끙끙 앓은 모양이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제 부모를 보고는 직접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손자의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측은했습니다. 특히 가능하거면 하다면 부모님 대신 집안의 생활비까지도 자신이 벌어서 보태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찢혔습니다.</p> <p>저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슬쩍 물었더니, 380만 원 정도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은 익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큰 금액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랐습니다. 한동안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지만, 한숨만 나오고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비로 큰돈을 썼기에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다 보니 특별한 소득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로서 손자를 위해 등록금 한 번 내줄 형편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저 미안하기만 했습니다.</p> <p>하루는 가까운 지인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한참 동안 내 얘기를 들은 지인은 뜻밖에 ‘휴면예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금융지식에 능통한 지인은 내게 “휴면예금이라도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이제는 은행 여러 곳을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으니까. 얼마 전에 나도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잊고 지냈던 휴면예금을 찾아서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이라며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이 겨울잠을 자듯, 금융계좌도 보통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 상태에 들어간다”라고도 설명해주었습니다.</p> <p>지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휴면예금’은 잠자고 있는 돈을 일컫는 것인데, 꼼꼼한 성격을 가진 나에게 설마 모르는 돈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나이를 먹은 내가 따라하기에도 쉬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인증만 하면 됐습니다.</p>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저는 화면에 표시된 내 휴면예금 금액을 보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거액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살펴보니 제 주거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거나 큰돈이 계좌에 있을 리가 없어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문득 지난날 보험금을 받고 병원 치료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계좌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중병을 앓았던 탓에 온 신경을 치료와 재활에만 집중했습니다. 특히 형편이 여의찮아 치료 중에 받은 보험금을 그때그때 다음 치료비로 돌려 썼는데,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입금된 보험금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10년도 훨씬 더 넘게 거래를 안 했는데, 이 돈도 찾을 수 있나요?”라고 묻자, 은행원은 “당연히 찾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지급신청을 했고 얼마 안 있어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손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200만 원이 몇 배 이상의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손자를 집으로 부른 저는 기초연금을 받아 푼푼이 모아왔던 돈에 휴면예금 200만 원을 더해 총 400만 원을 손에 쥐여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손자한테 다른 좋은 건 못 해줘도 등록금 한 번은 꼭 내주고 싶었어. 할머니 마음이니 받아두렴. 그리고 힘들겠지만, 휴학은 하지 말고 계속 학업을 이어갔으면 좋겠구나.”

손자는 할머니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렇게 큰돈은 받을 수 없다며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그런 손자를 향해 저는 진심을 담아 설득했습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단다. 지금 당장 휴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학업을 이어가서 빨리 졸업해 제대로 돈 버는 길을 택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구나.”

결국 내 진심을 받아들인 손자는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돈 봉투를 받아든 손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돈이 통장에 남아 있었지 뭐니. 혹시 모르니까 너도 한 번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에서 확인해보렴.”

“할머니가 젊은 저보다 정보력이 훨씬 좋으시네요!”

손자는 곧바로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에 접속해 휴면예금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손자 역시 자신도 모르고 있던 휴면예금이 4만 3000원이나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휴면예금으로 제 등록금 내주셨으니까, 저도 이 돈으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돼지갈비 사 드릴게요.”

그날 손자와 함께 먹었던 돼지갈비는 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이 있었습니다. 휴면예금이 손자와 저에게 가져다준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손자는 제가 준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계속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휴면계좌 속에서 잠자고 있던 소중한 돈이 손자의 등록금이 되어 저에게 몇 배의 기쁨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았더니,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총 2432억 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휴면예금 잔액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무려 2조 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들 “설마 통장에 돈이 남아있겠어?”라고 생각하는 통에 잊힌 돈입니다.

돈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에서 확인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잊고 있던 계좌도 정리하고, 잠자고 있던 돈도 찾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휴면예금은 일상에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건넨 따뜻한 금융서비스가 있어 오늘도 제 마음에는 훈훈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5. [장려] 정*정

<나이 육십에 부여잡은 한 줄기 빛>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4대째 옛날 양반가 완전 숙성 홍어와 숙성 큰 보리굴비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15년 전 저는 이를 악물고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이를 받지 못해 금전적 고통을 크게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출근 첫날을 기억합니다. 일을 하러 갔는데 가게 사장님이 “그냥 집으로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돈이 급한데, 왜 나를 돌려 보냈을까?’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50대라는 나이를 잊고 ‘여기서 어떻게든 일어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가면 “안녕하세요”라며 밝게 인사하고 “어떤 일을 할까요?”라며 주방과 홀을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으로 생활했습니다.

반나절 일하면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서로 다른 가게에 찾아가 6만 원의 일급을 받았고 이렇게 2년 8개월 동안 명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식당뿐 아니라 이삿짐센터나 청소업체에 찾아가 짐도 열심히 날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를 열 수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홍어를 비롯한 20여개 메뉴를 파는 작은 가게를 개업해 오후 1시쯤부터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있으면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간 장사를 해 돈을 모은 뒤 약간 평수가 큰 가게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홍어와 보리굴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방법으로 숙성하려 하니, 홍어 3마리를 삭히면 1마리 분량만 나와 처음에는 손해만 보았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흑산도 수협에서 직접 경매하는 흑산도산 홍어를 사야 했는데, 이때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거래가 됐습니다. 특히 입춘 전후를 놓치면 건강하고 맛 좋은 홍어를 살 수가 없었는데,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홍어 살 시기를 놓칠까 마음을 졸였고 가게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도 컸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미소금융을 알게 됐어요. 그곳에 전화를 하니 상담해주신 분이 친절하게 말씀해주시고 대출금도 지원해주셨습니다. 특히 낮은 이율 덕분에 제2금융권을 이용할 때보다 심적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돈을 못 갚으면 어쩌나’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홍어·굴비 가게는 고객

이 자주 오는 일반 식당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매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게를 애용해주시는 손님층도 정해져 있기에 돈을 버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이었을 겁니다. 때마침 미소금융 사무국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교육을 받고 장사해 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는데, 인터넷을 통해 가게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지원해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감사하다”고 한 뒤 교육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서민금융진흥원 소속 선생님이 오셨고, 지난해 7월 9일부터 15일까지 1차 교육, 11월 3일부터 9일까지 2차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15일 정도였고 4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게를 홍보할 수 있게 되면서 손님층이 기존보다 다양해졌습니다. 먼 지방에서 손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포장·택배·퀵도 많이 이용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교육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사무국장님과 교육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을 했을 때와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게를 열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 준 미소금융에 감사드리고, 저처럼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 [장려] 이*희

제 목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미소금융에서 서민 대출로 큰 도움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을 수 있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가 셋이며 원룸에서 11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일하던 어느 날, 아이가 벌벌 떨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감옥 가요?”하고 울면서 말하길래 이유를 물으니, 어떤 아저씨 3명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이거 절대 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달려가니, 큰아이와 어린 동생들이 영영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융권에 1500만 원의 빚이 있었으며 빚이 연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빚 독촉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있는데 이 건 너무하지 않냐”고 하면서 “한꺼번에는 못 갚아도 다달이 힘닿는 데까지 갚겠다고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제가 울면서 말하니, 집행관 중 한 분이 그럼 5만 원을 빌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길로 전 5만 원을 빌려서 청주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고 다달이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옆집 아기 엄마가 저한테 “언니 너무 힘들면 파산선고를 하세요”라고도 했지만, 내 자식 입히고 먹이느라 진 빚은 조금씩 힘닿는 데까지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8년간 다달이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1500만 원을 완납을 하고 나니 몸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셋 한 번도 학원을 보내지 못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LH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아이들 방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집안 사정을 아는지 자기들은 인터넷 강의가 더 좋다며 EBS 강의만 듣고도 성적도 좋고 무탈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셋째가 다치는 바람에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미소금융 저리대출은 저에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첫째 아이는 취업이 쉽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있고, 둘째는 군 복무 중이며 올해 10월이면 제대하고 내년에 복학합니다. 셋째는 고1 때 넘어져서 꼬리뼈 골절로 3개월간 치료를 받고 검정고시 합격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제로 버는 100만 원으로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해 마음

이 피폐해지고 우울하고 고민에 빠져있을 때, 미소금융이 서민 대출을 저리로 해 준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금융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고, 김 부장님이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신 덕분에 돈에 대한 압박감을 벗어나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1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저에게 3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하고, 둘째, 1시간 이상 책을 읽고, 셋째,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사는 빌라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 일을 꾸준히 하니 저희 빌라에 사는 분들이 제가 임대인이 아니라 집주인 같다고 하며, 깨끗해졌다고 모두 좋아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LH 매입임대 주택에 총 1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같이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미소금융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모든 분이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은 대출금 갚고 알뜰하게 생활하지만, 그동안 주위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200만 원을 5년에 걸쳐 매월 21만 5624원씩 갚아 나가는 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아직도 다 갚으려면 2년여 남았지만, 월급이 나오면 제일 먼저 대출금 먼저 떼어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신 미소금융 김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가작) 최*수

제 목	우리 부부의 슬기로운 금융 생활
<p>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선 빚보증이 잘못돼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어렵게 장만한 집이건만,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p> <p>집안 곳곳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오랜 시간 애정을 쏟아온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것을 보니 내 가슴에도 빨간 피멍이 들었습니다. 전부터 징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루가 다르게 굳어가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었습니다. 두어 번 아내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아내는 대충 얼버무리곤 했습니다.</p> <p>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 다. 아내가 보증을 서 준 손위 처남이 파산하는 바람에 우리가 채무를 모조리 떠안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도 우리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해놓았다는 처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터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p> <p>아내가 빚보증을 선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습니다. 처남의 사업이 잘못될 리 없다고 생각했을 뿐더러, 잘못돼도 우리가 돈을 갚는 일은 없을 거라던 아내의 말만 듣고 보증에 동의했던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며 대출이나 연대 보증 같은 금융·경제 분야에는 문외한이었기에 빚보증이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p> <p>집을 처분하고 나자 수중에는 단칸방 하나 구할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 다. 적금을 제외하고는 통장에 남아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 부부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 다. 내 보금자리에서의 안락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매일 매일이 그야말로 불타는 지옥 속을 뛰어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p> <p>적지 않은 나이에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려니 삶 자체가 막막했습니다. 일단 몇 년 동안 부어온 적금을 깨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은행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적금을 깨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면 지금 당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빚보증 때문에 이렇게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p> <p>그즈음 저는 금융 교육 무료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을 알게 되었습</p>	

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부부는 그간 금융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부부는 몸으로 체감했던 터라, 간절한 마음으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가능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의 금융 지식을 레벨 업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PC는 물론 휴대전화로도 수강이 가능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출, 부채, 재테크, 금융 상품 등 필수 금융 상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나처럼 금융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었고, 생활밀착형 교육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일단 금융지식 테스트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너무 쉬워 90점 이상 맞을 거라고 자부했는데, 생각보다 틀린 문제가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 우리 부부가 금융을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이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을 통해 재무 설계 강의를 듣는 한편, 생애주기별 신용교육과 디지털 금융사기 완전 정복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불법대출이나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금융 공부도 공부지만, ‘금융교육포털’에서는 금융 생활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어 우리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알게 되어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포털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금융 공부를 하면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 설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융교육포털’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습득한 금융 지식을 토대로 우리 집의 경제 상황에 대해 하나씩 분석해 보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더 이상 빚은 없었던 만큼, 소비 습관을 줄이고 금융 계획을 잘 짜서 실천하기만 하면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활비를 포함해 정확히 한 달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여기저기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날리게 된 것도 금융·경제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처남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빚보증을 서렸다가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아내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확인하는 세심함이 부족했습니다. 살림하면서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예상외로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것을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새롭

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달 지출 내역을 뽑아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매달 꾸준히 저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금융 계획을 촘촘히 세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내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술과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술과 담배를 끊는다고 가게에 큰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한 달 동안 술을 마시고 담배 사는데 쓴 돈을 계산해 보니 그것도 무시 못 할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1월마다 결심만 하고 끊지 못했던 해로운 담배를 끊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도 전기나 수도, 보일러 등의 사용을 줄이고 화장품이나 의류 등의 지출까지도 약삭같이 줄여나갔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최대한 지출을 자제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 해준다는 미안함 때문에 한동안은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해주는 실속 없는 부모보다는 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의 빚보증 때문에 미래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만, 우리 부부는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덕분에 조금씩 고통 속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덕분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금융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현재 금융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은 우리 부부에게 금융 생활과 관련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양한 교육 강의를 통해서 금융지능지수를 높인 결과, 현재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고, 너무 늦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도움을 받아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어간다면 훗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8. [가작] 가*영

제 목	고액 과외
<p>제가 ‘돈에 관한 고액 과외’를 통해 배운 것은 세 가지입니다.</p> <p>첫째는 기본적인 금융 상식을 알아둘 것. 둘째는 배운 금융상식을 바탕으로 직접 돈을 관리할 것. 셋째는 돈은 잃어도 자신은 잃지 말 것입니다.</p> <p>벌써 십 년도 더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또르르 맺힐 정도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엉엉 울면서 잠을 설쳤지만, 아침이면 억지로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p> <p>학교에서 거창하게 ‘경제’가 아니라 ‘저축과 대출’이라는 과목이 있었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통장관리 팁이나 월급 관리 방법론들이 많이 공유되니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p> <p>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준비 없이 20살이 되자마자 사회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당당하게 별어서 옷도 사고 친구들 맛있는 것도 사주니 어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적금은 들 수 없었지만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불 보듯 뻔하게 흘러갔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자 눈덩이처럼 불은 결제대금이 날아왔습니다. 분명히 쓴 돈은 2만 원, 3만 원인데 카드값은 백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제 능력에 한계가 왔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을 소개해 주며 가입을 권유했고, 저는 동아줄을 잡은 듯이 기뻐하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리볼빙은 복리이자처럼 ‘지난달 미결제 잔액+이번 달 결제 잔액’식으로 눈덩이처럼 커져 불어나기 때문에, 정말 급한 사정이 있거나 바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걸 모르는 저는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고, 이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p> <p>기본 금융 상식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요? 자신이 받는 월급을 나눠 사용할 수만 있는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내 월급 100만 원을 예로 들면, 월급에서 핸드폰 요금과 보험료, 월세 같은 고정비 30만 원, 식비와 교통비 같은 생활비 45만 원을 제외하면 25만 원이 남습니다. 이 중 10만 원은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비상금 목적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A에, 나머지 5만 원은 옷 구매나 모임 등을 위한 통장 B에 둡니다. 그리고 남은 10만 원은 적금을 들고, 지출은 고정하고, 월급이 오르는 만큼 적금 비중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전문가들처럼 연령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꼭 써야</p>	

할 돈과 아낄 수 있는 돈, 모아야 할 돈이라는 개념만 있었어도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관리해 보며 점점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쾌한 음악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대부 업체 광고들이었습니다. 걱정 말고 전화 한 방이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전화하니, 필요한 금액의 몇 배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카드나 쿠폰을 줄 알았지, 30%대의 이자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담당자는 빠르게 약관을 읽어 줬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지도 않던 저는 기계처럼 “네, 네”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다. 한 300만 원 더 빌려와서 나한테 맡겨봐. 아는 사람 말이 주식에 넣어두면 내년쯤이면 10배 넘게 오른대. 이자 30%?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적금과 대출도 잘 모르던 나한테 주식이라니. 그것도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닌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주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저는 ‘10배’라는 말과 지인을 믿으며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지, 퇴직금을 믿고 맡겼다가 모두 잃었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례들을 뉴스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10배, 10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뭐 하러 번거롭게 다른 사람 돈을 가져다가 굴러줄까? 이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부자가 되어 은퇴하지 않았을까, 하물며 돈 벌기가 그렇게 쉽다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 상식을 저버린 대가로 제 이름으로 낸 빚더미에 스스로 깔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한 달에 50만 원쯤 꼬박꼬박 입금하는데도 원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라 매월 납입 금액은 같지만, 초반에는 계속해서 이자만 갚는 꼴이었기에 그랬다는 걸 한참 뒤에나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월급도 조금 올랐지만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저는 주말을 반납하고 투잡까지 해야 했습니다. 돈을 굴려준다던 지인에게 잘 돼 가냐고 물으면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그런 것까지 너에게 보고해야 하는 거냐”라며 으박지르다 내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라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현실적으로 ‘나는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하고 두려워하다가도 ‘아냐, 이러다 갑자기 대박이 터질지도 몰라’라며 현실을 회피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

났습니다.

답답함에 짓눌려 자다 일어나 울기도 하고, 그냥 멍하게 대출 잔액 창을 바라보며 몇 시간씩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회사 생활도 너무나 힘들어 원형탈모가 올 지경이었지만, 돈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어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기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처럼 사무실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신문 속의 ‘햇살론’ 광고가 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TV 광고에서도 노란 바탕의 따뜻한 햇살을 담은 이미지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홀리듯이 집 근처 새마을금고로 달려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환 목적임을 밝히고 조회를 해보니 천만다행히도 모두 갚을 수 있는 수준의 한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꾸준히 회사를 다니고,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돈을 벌어 연체하지 않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서류를 준비했고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환일, 가슴에 답답하게 박혀있던 말뚝을 빼낸 듯 저는 홀가분해서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창구 담당자님께 인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짐을 함께 짊어 주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원금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짐은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급관리 방법을 찾아보고,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에 시달렸던 저는 그 후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들 교육이 주 업무였는데, 카드 사용방법은 물론 위험성에 대해서도 항상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직 후에도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보험 판매 자격증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금융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맡아 사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저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발전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주식 광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힘든 경험이 없었다면 또다시 한 방을 노리며 모든 돈을 끌어다 썼을 것이고, 그랬다면 정말 기약 없는 구덩이로 빠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20대의 뼈아픈 기억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배운 ‘고액 과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패배자 같았고, 인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햇살론을 만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겪고 나서 보니,

비록 돈을 잃었더라도 나를 잃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저의 경험이 조금의 위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적었습니다. 이제 제 경험담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당신이 더욱 멋지게 장식하길 바랍니다.

9. (가작) 김*희

제목: 사기꾼?

남편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저는 돈에 관심이 없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경제용어와 숫자에 밝았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많은 적든 말을 하면 안 되고, 여자는 고마움으로 알뜰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교육을 받았기에, 남편 수입이 많다 적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경제권은 남편이 갖고 있었으며, 저에게 주어진 것은 남편 명의의 체크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현금이 필요하면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출금해서 사용하고, 남편이 마트에서 장을 봐서 사다 놓은 찬거리로 밥상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남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왜 그런 걸 먹느냐고 해서 먹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남들도 그렇게 사나보다 할 만큼 대인관계가 없었고, 나를 많이 버린 삶과 남편에게 맞추는 것이 가정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답답함이 한 번 씩 나를 짓누르면 나를 좀 더 죽여야 한다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 그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저는 학교 주변에서 하교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까지 차로 데려오고 데려가는 터라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수입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니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제 수입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어쩌다 송금이 늦어진다거나 잠시 일을 쉰다거나 할 경우엔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아 저는 또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앵벌이 시킨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딸 아이 하나 있는데 잘 가르쳐서 저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면 나보다 경제를 잘 아는 남편이 잘 해 줄 거라고 믿고, 남편의 의견을 따라 수입을 모두 입금하고 필요한 만큼은 타서 쓰며 살았습니다.

제가 받아오는 급여가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버는 월급으로 생활하며 월 1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며 직장을 관두고 실업급여와 제 수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작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입이지만 남편이 어떻게 잘하겠지 하고 믿으며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냥 경제 쪽으로 공부를 하나보다 하고는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낮잠을 잔다거나 나태해지는 삶이 이어지고, 그가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에 관해서 물으면 묻는 말에 대답은커녕 화를 내기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해보아야 싸움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모든 수입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싸움이 지겨워 계좌이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학원가기를 원했으나 남편은 돈 쓰는 게 싫다고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폰을 들고 다녀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고 속상해하는 딸을 본 후 저는 수입을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딸의 학원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점점 남편과의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딸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라고는 그 달에 받은 월급 200여만 원과 딸아이 노트북을 사주려고 만든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월세로 살려고 해도 보증금도 없고, 딸아이 교육비, 생활비, 월세 등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큰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해도 남편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카드론이 있다는 걸 알고 카드를 하나 더 만들고 카드론으로 보증금 1500만 원을 만들어서 월세 70만 원으로 먼저 집을 구하고 딸과 함께 나와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월금으로는 카드론에, 월세에 아이교육비까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정육점 일을 빨리, 많이, 자세히 배우기 위해 퇴근 시간이 지나도 팀장 주변을 청소하며 어쨌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기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과 딸 학교 가까이에서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정육점을 오픈했습니다.

주변에 정육점이 없다는 것과 문산이라는 동네가 부유함과 무관하게 한우를 먹는다는 걸 알기에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정을 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단 딸을 생각하면 밟혀도 좋다는 마음으로 고기 업체마다 제발 도와달라고 꼭 갚겠다고 후불제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게의 냉장냉동고와 기계, 진열냉장고 등 모든 것을 후불제로 하여 매월 되는대로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하고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백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마음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추석과 뒤이어 돼지열병이 찾아왔습니다. 한우는 명절 후라 그리 나가질 않고, 돼지는 돼지열병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태에

서 거래처에서는 돼지가 없다고 해서 팔지 못하니 손님의 발길도 한 달 넘게 뜸해졌습니다.

준비된 자금 없이 시작한 저에게 닥쳐온 위기가 길어졌고, 카드 대금을 못 막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 딸아이와 함께 살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출도 되지 않고, 주변 누구도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카드대금, 집, 가게 월세 내는 날은 왜 이리도 빨리 돌아오는지 숨 한번 제대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정신을 자리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진다. 집중하고 신중하자. 어떻게든 장사가 되어서 살아야한다’는 마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버틸 무렵이었습니다.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 ‘정부지원자금 개인사업자 저금리대출’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남아 있는 카드론도 빨리 갚아버리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고깃값을 주고 싶었는데... 우편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 관련 사기꾼들이 많다고 들어서 지인을 통하여 전화로 문의해보도록 부탁했습니다. 지인의 말은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전화 문의를 해보니,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지점장이 직접 온다고 했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온다고? 그런 사람이 올만큼 나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육점이란 것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만질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아직은 아닌데... 이건 사기다. 그래 와보면 알겠지. 사기면 신고해버려야겠다’하고 일단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미소금융에서 찾아왔고, 명함을 보니 정말 지점장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사기꾼이면 넌 이제 내가 신고한다. 꼼짝마’하고 생각하고 또 사기꾼들이 보면 직급을 높게 해야 상대가 믿고 이것저것 정보를 다 주니까 저 사람 또한 그러하겠다 싶어서 의심을 갖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지점장에게 어디 살았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사실대로 의심스럽다. 지점장이 왜 직접 이렇게 서류를 받으러 나오느냐 등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질문하면서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사기가 아니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선 저에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출금이 나와도 당일은 돈을 그대로 통장에 두고 다음 날도 그대로 통장에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돈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어쩔 수 없이 급한 곳부터 조금씩 메꾸기 위해 출금했지만, 첫 달 대출금이 나가기 전 까지도 혹시 사채 이자를 원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 후 지점장님이 한 번씩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장사는 잘되는지, 아직도 의심하는지 물을 때는 처음에 의심했던 말들이 생각나 미안하고 쑥스러웠습니다. 지점장님은 기운이 없을 때는 꼭 문자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항상 응원의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면 녹초가 되어 버리기에 뉴스를 듣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점장님께서서는 재난지원금 같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혼

자 장사하느라 정신없는 가운데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마다않고 도와주시는 지점장님은 의심스러운 사기꾼에서 감동을 주시는 고마운 지점장님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가게 운영이 또다시 어려웠습니다. 밤에 알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도 월세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오래된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지점장님의 도움으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게 되어 가게 운영 경비와 아파트 구입 대출 건도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대출해 주지도 않고, 경제상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미소금융 지점장님의 관심과 도움으로 제가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으며, 작고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은 날, 고마운 분께 드리는 감사의 자리에 미소금융의 지점장님을 상석에 모시고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 저도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미소금융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본사 사업지원팀 팀장으로 계신 손 지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 [가작] 유*람

제 목

막다른 길에서 희망을 찾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넘게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합격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카드와 소액대출로 해결했고 수중에 돈은 떨어지며 조금씩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앞친 데 뒤편 격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데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들을 방문하며 대출을 신청했지만, 신용점수, 소득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중금리의 대출 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여러 곳에 상담을 받으러 다닌 끝에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입원이 없었고 보증금 대출까지 더해져 갚아야 할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월세를 내야 할 기본적인 생활비가 수중에 없었을뿐더러 매달 갚아야 할 상환 금액을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였고,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위한 대출 신청을 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 집 보증금을 위해 은행을 전전하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현재 소득이 없는 저에게 선뜻 대출을 해 줄 리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좌절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으로 은행들의 대출 상품들과 조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대부분 불가능했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고금리의 소액 대출만이 가능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 돈을 빌렸다가는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 어려울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햇살론15'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금리도 취업준비생으로서는 부담이었고 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저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와 같은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5%의 고정금리와 소득 증명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된 서류로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근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앱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했으며 추가 보완 서류도 손쉽게 앱에 올려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례 보증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 상품을 이용하는 저는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아직 대출

승인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보자마자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앱을 실행해 차근차근 안내대로 대출 신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대출 신청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번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한 아름 들고서 왔다갔다 하고 대기표를 받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정도의 금리는 은행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금리에 해당했습니다. 저는 약 열흘간의 시간을 승인이 나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결국, 재취업이 되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대출 승인 날, 바로 급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며 미래를 위한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햇살론유스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제힘으로 일하면서 목표를 향해 다시 달려나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까지도 듭니다. 그렇지만,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보았기에 햇살론유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출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기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면서, 실직한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햇살론유스’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11. [가작] 한*수

제 목	596에서 725까지
<p>596에서 725까지. 약 4개월 동안 변화된 저의 신용점수입니다.</p> <p>2020년 8월, 검색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신청하고, 2021년 3월 12일까지 평균 월 1회의 전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25일 첫 상담 시 596점이었던 제 신용점수가 약 4개월 후인 2021년 1월 25일 725점으로 높아졌습니다.</p> <p>저는 2019년부터 대학생 진로·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예정된 캠프가 모두 중단되고 대학 취업 지원실 운영도 중지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급여가 있었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다가 현실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NO'라고 말해주는데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하며 신용 카드의 최대 이용 한도까지 빌려 투자하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p> <p>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하고,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카드로 쓰면서 부채는 늘어났습니다. 4대 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라 대출이 가능한 곳은 카드 대출뿐이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2020년 8월 기록을 보니 은행업종 2건, 저축은행업종 1건, 할부금융업종 2건, 카드업종 5건, 총 8건의 대출이 있었습니다.</p> <p>2020년 마지막 캠프를 마친 후 부지런히 구직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가기도 했지만, 상반기가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간제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필요 인원이 많아 면접을 통과한 후 배치된 병원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p> <p>첫 급여 날 아침,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통장을 확인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동료의 말을 듣고 통장을 확인하니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하던 곳에서 제날짜에 받은 적이 없어 잊고 있었습니다.</p> <p>4대 보험이 제공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지나야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당 컨설턴트였던 최 선생님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앱과 관련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p> <p>저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앱을 통해 현재 신용으로 대출 가능한 곳을 모두 볼 수 있었고, 그중에서 승인 가능한 곳을 찾아 신청했습니다.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은 신청 자체가 되지 않고, 하나은행이 가능했습니다. 일하는 병원에 하나은행이 있어 방문 후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공단에서 보내준 서류가 은행이 원하는 서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p>	

결국 해를 넘기고 2021년 1월 초에 다시 진행했습니다. 금방 진행될 것 같았던 대출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대출이 되려면 대출 가능 금액이 현재 대출보다 많아야 하는데,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그것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급하게 돈을 구해 8건의 대출 중 500만 원을 상환하고, 은행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하나씩 대출을 상환할 때마다 확인서가 필요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행과 카드사에 전화해서 확인서를 요청해야 했는데, 통화 연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쉬는 시간마다 통화해도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 멘트만 나왔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아직 안됐냐고 재촉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며칠 동안 은행을 방문하며 어렵게 해결했습니다.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저축담보대출 1건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은행 대출 1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점수도 이때를 기준으로 700점대를 넘었습니다. 그 후에 리볼빙 금액이 많은 것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앱에서 저축은행 대출 1건을 하나은행보다 낮은 6%대 금리로 받았습니다.

올해 서울시민자유대학 동남권 캠퍼스에서는 ‘스무 살부터 여든까지 갖고 가는 금융 기초지식’을 2시간씩 10주 동안, 총 20시간 수업을 들으며 금리, 신용점수 관리 등 금융 기초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연체가 신용점수를 깎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작은 공과금이라도 잊어버려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 건강보험료 납부를 자주 깜빡하기에 고지서가 오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둡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시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나를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컨설팅을 통해 혼자 검색으로 찾기 힘든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고,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신용을 관리하고 대출이자를 낮추고, 희망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핵심 가치인 H/O/P/E(서민에게 희망을)가 끝까지 잘 지켜지고 영역이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7개월간 함께 해 주신 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